



청풍(廳風) 세우기

열정의 하루 백년을 연다



이 기 용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043-290-2000

우리 교육자가 가지는 열정의 하루는 단순한 개인의 미래를 넘어 꿈과 희망의 학생들을 향한 교육 백년대계의 원동력이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남이 내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넓은 안목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남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고 했다.

하루를 산다는 각오로 100년 누릴 열정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다. 가훈이란 가정의 생활 철학의 상징이며 도덕적 실천의 기준이요, 가족 모두가 지향하는 행동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과 악하고 그 총량을 모아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 온 과거의 총결산이며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나는 언젠가부터 우리 충북교육청의 청훈(廳訓)이나 청풍(廳風)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를 생활의 지표로 삼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런 뜻을 품고 중지를 모아 마련한 청풍(廳風)이 “열정의 하루 백년을 연다.”이다.

하루를 살되 그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그러 한 삶이 100년 동안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 하자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적인 투자가로 불리는 존 템플턴(Jone Templton)은 그의 저서 「열정에서」 열정은 행복 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다. 열정을 이어나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역설했다.

존 템플턴이 사업수단으로 열정을 외쳤다면 우리 교육자가 가지는 열정의 하루는 단순한 개인의 미래를 넘어 꿈과 희망의 학생들을 향한 교육 백년대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비전과 창조적 지혜

열정에 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결정되는 것이다. 덕목으로 미래 비전과 창조적 지혜를 꼽을 수 있다.

비전은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향해 바라보는 꿈이다. 꿈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꿈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희망은 목표를 전제로 하기에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때 활력이 솟구친다. 생기가 나고 의욕이 솟아난다.

우리 충북지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웠다. 그의 꿈이 무르익은 것은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

에 선발된 고등학교 시절,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이 그의 외교관 인생을 결정짓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5년 뒤의 세상은 만져본 것에 국한되고, 무지한 사람의 세상은 자신이 가진 지식에 의해, 위대한 사람의 세상은 비전에 따라 정해진다.는 E. 폴 하비(Paul Harvey)의 말처럼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대하는 책속에 달려 있다.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어 상신(商神)이자 초인(超人)으로 추앙받는 세계적인 기업가 리자청(李嘉誠)은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고 말한다. 지식과 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식을 창출해 내는 지식 생산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축구 선수 박지성이 명장 히딩크를 만나 그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지금 어떤 지식을 익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하는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최근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화에서 자율화·다양화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백년을 향한 미래 비전과 창조적 지혜 그리고 이 모두를 조화롭게 아우를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의 하루가 교육 백년을 열어가기 때문이다.

나는 교육 백년을 위해 열정의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열정의 하루 백년을 연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 기술 표준 2007. 8